

## 중국·러시아는 억류 탈북민들을 조속히 석방하고 여행의 자유를 보장하라!

일시 : 2022. 5. 24(화) 11:30

장소 : 중국 대사관 앞 (명동 중앙우체국 광장)

1. 지난 4월 1일 제49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20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인용한 토마스 오헤아 키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의하면, 피난처(asylum)를 찾던 북한 주민 3명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소재 북한 영사관에 감금되어 있고, 북한 주민 1,500명이 중국에 억류되어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국경봉쇄가 해제되는 즉시 강제북송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탈북민으로 알려져 있다.
2. 중국과 러시아는 난민협약,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 고문방지협약에 모두 가입하였으므로, 강제송환 금지원칙(non-refoulement)에 따라 이들 탈북민들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북한으로 송환해서는 안 되고 여행의 자유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 정부는 자유를 찾아 국경을 넘어오는 탈북민들을 단순한 경제적 이주자로 보고 강제북송해 왔다. 이는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하는 반인권적 만행이다. 조속히 이들을 석방하고 여행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2022. 5. 23.

한반도 인권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